

대덕 특구의 십년 후를 구상하자.

“포도처럼 서로 연결된 형태와 딸기처럼 서로 독립적이면서 울타리를 갖는 형태, 그리고 사과처럼 한 알이 독립적인 구성원이 모여서 만든 다양성을 지닌 생태계”

1) 기업과 연구소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생태계

기업의 연구는 현재 또는 미래의 시장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진다. 정부출연 연구소는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이 수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현재의 기업이 정출연의 연구 산출물에 대한 수요처로서의 역할과 함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방향성을 고민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놀라운 결과물의 산실

새로운 시장을 열수 있는 결과물들은 전후방의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은 전자, 광학, 통신, 게임, 앱, 클라우드, IDC, ESS 등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매년 다른 분야의 성장을 서로 견인한다.

대덕 특구의 결과물들은 비교적 기본이 튼튼하고 무겁기 때문에 앱처럼 간단하지도 않고 휘발성이 크지도 않아서,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3) 특구의 새로운 씨앗이 필요하다.

기술자와 기술적 아이디어가 풍성한 대신 기업가와 자본가가 매우 부족하다.

새로운 모양의 산업과 형태가 다른 연결은 자본을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계의 원활성을 부여하는 자본가 및 자본(기술금융 등)이 필요하고, 이를 상상하여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가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로서의 대덕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방향성을 제시할 전략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트렌드를 짚어보고 대덕이 나아가야 할 전략과 대덕의 클러스터가 지녀야 할 모양이 결정되는 shaper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경륜을 지닌 분들과 열정을 큰 분들이 함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보육센터 및 아이디어 ; 현재의 보육센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덕 전체에 여러 특화된 보육센터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 에너지 등 관련 산업들이 보육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간은 공적 자본과 민간 자본의 혼합에 의해서 스케일과 유연성 및 속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대덕 공동체의 가치

창조성: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를 ,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된;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

다양성: 인문/과학/예술, 기업가의 상상력/기술의 우위성/자본의 윤희성

교배성: 생각의 교배/ 행동의 교배를 통한 산출물을 제작하는 문화창조

선순환성: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후배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가치

“사과 나무의 진짜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이며, 여러 나무들이 자라서 만든 숲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산물이 되어야한다”